

# “여성 과기인, 갈 길은 먼데 발걸음 무겁다”

중장기 발전의 핵심... 양성·지원 현실은 아직 요원  
 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1주년기념 심포지엄 중계

글 | 김 현 \_ 기자 hkim@kofst.or.kr

“**고**령화·저출산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해답은 여성 인력이 갖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여성 과학기술인이 우리 사회 중장기 발전의 해답이다.”

“사회 전체적으로 여성의 활동은 늘고 있지만 과학기술분야의 여성 활동은 낮은 수준이며, 그나마 하위직에 몰려있는 상황이다.”

지난 2월 3일 이화여대 이화-신세계관에서 열린 ‘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개원 1주년 기념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여성과학기술인력을 우리 나라 발전의 핵심 키워드로 꼽으면서 이들이 처한 현실적 모순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 교육부족 → 하향취업 → 육아부담 → 승진한계의 악순환

먼저 우리 나라 여성 인적자원 양성 문제점을 지적한 송하중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은 “국가경쟁력 세계 3위, 국민소득 4만

달러라는 2020년 국가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하지만 우리 여성과학기술인은 교육기회 부족 → 하향취업 → 가사 육아 부담 → 승진의 한계 라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지난해 국제경쟁력개발원(IMD)가 발표한 세계경쟁력연감(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자료를 제시하고 “전체고용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41%에 달하지만 여성 관리자 비중은 0.5%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여성인력의 낮은 승진율은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도 매우 낮게 나타났다. 과기부가 지난해 조사한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인력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업 9.6%, 공공연구기관 10.9%, 대학 16.9% 였다.

송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일궈온 지난 60년의 성과를 비춰볼 때 고급 인적자원 양성은 비전의 핵심 전략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 가운데 여성인력의 활용이 미흡한 점은 가장 큰 약점으로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인력 분절현상 심각, 다양한 정책 체계 필요”

김기완 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원의 ‘여성 과학기술인 현황 분석’ 역시 송 위원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김 연구원은 “여성의 과학기술분야 진출은 최근 크게 증가했지만 전체 연구원 중 여성의 비중은 여전히 낮은 편이며, 특히 여성이 하위 직급에 집중되는 수직적 분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일선 연구개발 현장의 직급에 따른 수직적 분절뿐 아니라 전공 선택에 따른 수평적 분절 역시 심각했다. 김 연구원은 “이공계 여성 전공자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이학-여성, 공학-남성으로 치중되는 수평적 분절현상 역시 여전하다”고 말했다.



송하중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

“전체고용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41%에 달하지만 여성 관리자 비중은 0.5%로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김기완 KISTEP 연구원

“공급(육성)측면 뿐만 아니라 수요(활용)측면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남녀 과학기술인 간 수직·수평적 분절이 심각합니다.”

2004년 현재 이공계 여성 박사학위 수료자 1명당 이학 분야 남성은 3.59명, 공학분야 남성은 17.42명이 수료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김 연구원은 이 같은 현실에 대한 해결책으로 ‘다양한 스펙트럼에 대응하는 정책의 체계화’를 주문했다.

그는 “지금까지 여성 과학기술인력 정책은 공급(육성)측면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이제는 노동시장의 수요(활용)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청소년으로부터 경력연구자에 이르는 다양한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스펙트럼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양성간 불평등 해소와 이를 통한 사회 균형발전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급인력의 부족 문제도 여성인력을 과학기술분야로 적극 끌어올 때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국가가 여성고용 앞장서야 대학·기업 따라 온다”

전길자 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장(이화여대 화학과·분자생명과학부 교수)은 단체 설립 목적 설명에서 “센터의 설립목적은 여성과학기술인의 고용확대와 역량강화, 지위향상, 세계화”라고 밝히면서 “지난 1년 만에 센터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양성 평등이라는 두 개의 사회적 이슈가 센터를 이끌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전 센터장은 국·공립 연구기관과 대학, 산업체 등의 여성 과학기술인 고용 현황을 구체적으로 비교하면서 “보수적인 과학기술계 분위기를 생각할 때 국가가 먼저 나서서 여성 과학기술인을

고용해야만 기업과 대학에서의 고용을 늘릴 수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2003~2005년 3년 동안 여성 과학기술인 고용 현황 추이는 국·공립 연구기관(11.2% → 11.2% → 14.0%), 대학(16.1% → 16.3% → 16.9%), 산업체(9.5% → 9.1% → 9.6%)로 나타나 국·공립 연구기관의 고용 비율이 가장 낮았다(과기부,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

전 센터장은 또 여성 채용목표제를 실시한 우수사례기관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한국기계연구원(KIMM)을 꼽고 “기계연구원은 이공계 여성인력 현황을 자체 조사·분석하고 해외 설명회까지 갖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고, KIST는 승진심사위원회에 여성과학기술인을 임명했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전 센터장은 “앞으로 여성 채용목표제를 더욱 확대해 실시하는 동시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지위향상을 위해 승진비율 목표제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여성과학기술인과 정부에 중점을 두던 기존 사업에서 벗어나 2007년부터 진행되는 2단계 사업에서는 고



전길자 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장

“국가가 먼저 나서서 여성 과학기술인 고용에 앞장서야만 기업과 대학에서의 여성 고용을 늘릴 수 있습니다.”

위관리직과 민간기업, 국제 네트워크에 중심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는 당초 올해까지 15%의 여성 채용비율을 달성할 계획이었으나 이미 지난해 16.3%의 채용목표를 이뤄내면서 2010년까지 25%로 채용비율을 올리겠다는 목표를 다시 세웠다. 센터가 예측하는 과학기술계의 이상적인 여성 채용비율은 30% 수준이다. **SD**